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19돐을 맞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

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우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음울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어버이장군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사적자료와 전시물전시정형을 구체

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송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 선군조선의 창조본때를 만방에 떨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

상을 남김없이 과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전승기념관은 나라의 보물고, 반미대결장, 반미교양의 중요거점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이 지구가 훌륭히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사상, 탁월한 령군술을 깊이 체득하며 선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넋을 이어나가도록 천만군민을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전승 60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 준비를 잘하여 전 세대들이 이룩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떨쳐나갈 선군조선의 불변의 의지를 세계앞에 뚜렷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기관지 《라인 오브 마취》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을 승리로 령도하시어 조선당

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헤쳐오시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한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속에서 신음하던 피압박인민들에게 있어 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고매한 품도를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 김일성주석시야말로 20세기의 가장 결출한 정치가이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려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자주시대가 펼쳐져 조 선군의 진기가 명시되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선전부장인 다움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회고모임

###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19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5일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중국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생애를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보았다.

모임에서는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우화의 딸 장금록,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종의 딸 주위, 풍중운의 아들 풍중광 등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고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절대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발전설비생산에서 혁신 창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마식령속도》 창조 불길들 새차게 지퍼올리고있다.

기업소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종전 같으면 수개월이 걸려야 하던 최첨발전

소 2단계(청정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의 매물제관품을 최상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25일동안에 생산하였다.

자재와 부품공급을 앞세우고 공장, 직장, 공장들 사이의 협동생산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사회주의중산공업의 열풍속에 대중적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10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였다.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호상리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융합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재개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이며 합리적인

제2차 북남당국실무회담 진행

제안을 내놓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공업지구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도 없이 나와 공업

지구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주장만 고집하며 회담전선에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였다.

북측이 합의초안까지 제

시하며 적극적인 립장을 보였지만 끝끝내 남측은 구태의연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문제의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나섰으며 지어 내부사정을 구실로 회담일정까지 늦잡는 온당치 못한 태도로 나왔다.

남측의 이러한 무성의한 립장과 태도로 하여 결국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었다.

쌍방은 7월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3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야 한다



날씨예보를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기상수문국에서-

북과 남사이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겨레의 지향과 의사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면 쌍방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아야 한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는 오대동양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또한 민족내부에는 정경과 신앙, 주의주장이 각이한 단체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 주의주장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불신과 대결이 심화되고 나중에는 군사적충돌을 불러오

게 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만년 오랜 세월 형성된 민족성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클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특질이며 공동된 사상감정이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귀중

히 간직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사상감정과 특질은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리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사이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된것은 누구나 민족중시의 립장, 애국애족의 립장에 선다면 얼마든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작은 문제이건 큰 문제이건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풀어나간다면

한명국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7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또 한번의 위대한 선군영장을 모신 날다른 민족적기지와 환희에 넘쳐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 땅에 전승의 기쁨 흘리던속의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경축하게 되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다.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으로 천만군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공화국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 나날은 길지 않다.

그러나 피눈물의 언덕에서 온 나라 인민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안아 강성국가건설에 불타오르며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군대와 인민은 자기들의 생활과 행복,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락관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한방울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정월 초하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순제105땅포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자신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열병식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력이 있고 중국적승리가 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린 조국의 최전방 판문점을 찾으시어는 미제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날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북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려고하는데 이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한것이라고 평하였다.

적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단 한번의 헌치시찰로 물거품으로 만드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에서 사람들은 천출명장의 위인상을 페루로 걸잡했다.

경애하는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어느덧 1년, 비록 길지 않은 날이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령도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펼쳐주시고계신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겹치고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미쳐달뛰는 미제와 추종세력의 오만무례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병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 다고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올해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조성을된 정세의 요구로 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선을 제시하시여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의 7.27전승은 노래속에 이루어진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해야겠다.

무릇 음악예술의 생리로부터 그 감화력과 견인력에 대해서는 자라가 다 아는바이지만 불꽃 불이 오가는 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간 쏘드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레닌그라드교향곡》이나 《정의의 싸움》을 전승의 요인중의 하나로 여겼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깊은 조예를 지니시고 그 비상한 생명력을 통찰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전기간 노래와 함께 혁명을 하셨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힘해야 사는 보람이 있고 힘생기는 법이다. 노래는 혁명승리의 상징이다. 노래소리 높은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이는 전승의 주석께서 일관하게 내세우신 음악중시의 지론이다. 《수령님과 노래》라는 책의 갈무리를 먼저 주석께서 노래와 인연을 맺고 혁명하는 과정에 남기신 일화만도 130여건이나 된다.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나라찾는 길에 나선 때로부터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사항기》, 《반일전가》와 같은 애국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삶과 투쟁의 무기로 삼고 일제를 타승하시여 조국해방투쟁을 성취하신 주석께서는 원수격멸의 노래높이 반미대전에서의 위대한 7.27전승업적

## 전승의 기적, 노래와 함께

을 안아오셨다. 1950년 가을이면 전쟁의 가장 엄혹한 시기였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이 《크리스마스》전으로 압록강까지 이르렀다고 호언장담하며 총공세를 퍼던 때였다. 그 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반공적의 화살표를 어가시던 주석께서는 어느날 자신의 심중에 북받쳐오르는 신심과 락관을 담아 《적기》를 부르시였다. 최고사령부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의 선율을 천만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강철의 명장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적기》에 섬멸의 공격정신이 빛났었고 마침내 대적의 《크리스마스총공세》작전은 여지없이 분쇄됐다. 전선의 병사들이 부르는 《압록강2천리》노래소리가 침략자들의 압록강진공기도를 눌러버렸다.

루루이 다 풀음수는 없지만 불뿜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부터 《조국보위의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까지 전장을 뒤흔든 노래는 조국수호자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무기였고 침략자들

에게 무서운 징벌의 철추와도 같았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말 어느날이었다. 동부전선의 한 부대를 찾오시고 작전적과업을 하달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저녁무렵에 총공세를 퍼던 때였다. 그 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반공적의 화살표를 어가시던 주석께서는 어느날 자신의 심중에 북받쳐오르는 신심과 락관을 담아 《적기》를 부르시였다. 최고사령부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의 선율을 천만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강철의 명장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적기》에 섬멸의 공격정신이 빛났었고 마침내 대적의 《크리스마스총공세》작전은 여지없이 분쇄됐다. 전선의 병사들이 부르는 《압록강2천리》노래소리가 침략자들의 압록강진공기도를 눌러버렸다.

루루이 다 풀음수는 없지만 불뿜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부터 《조국보위의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까지 전장을 뒤흔든 노래는 조국수호자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무기였고 침략자들

투쟁의 진리가 힘있게 반증됐다. 치열한 격전으로 바위가 부서지고 대지에 화염이 휩싸였던 1952년 5월 어느날 주석께서는 평남도의 원화 땅을 찾으시고 농민들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리셨다. 승리한 래일을 그리시며 씨 불임을 하시는 주석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중군창작가들의 귀견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푸른 산, 기쁨의 들꽃을 날아오며 우짚는 피포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노래처럼 맑고 울려퍼졌다. 그래서 나온것이 《봄의 노래》였다. 가슴스러운 침략자들은 닥치는대로 불사르고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이 땅을 정복하려 했지만 전선과 후방에서 울려나오는 조국애와 항토애, 침략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짙는 노래소리를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

위대한 주석의 조치와 지시에 따라 인민군협주단과 군악단 배우들이 전선에서 펼친 노래무대에, 전호속의 병사들이 여가시간이면 즐기는 노래와 춤가락에서 침략세력은 전멸했다. 전장의 야외가설무대에서 《결전의 날》이 울려퍼지며 병사들의 군공소식을 기다리는 후방에서는 《우리 님 영웅되셨네》가 울렸다. 군민이 함께 부르는 《샘물에서》, 《아무도 몰라》,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와 같은 모든 전승의 요인중의 하나로 여겼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다.

무엇이든 다 풀음수는 없지만 불뿜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부터 《조국보위의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까지 전장을 뒤흔든 노래는 조국수호자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무기였고 침략자들

내 이젠 80을 넘긴 고령의 몸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아이적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부르는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코허리에 매운 바람이 찜하니 맺힌 눈물이 흐를수 없었는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백년에 고락이 상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세상살이가 다 잊혀진 채 어머니라는 부름에는 눈물이 앞서고 그 모든 감정의 씨앗들이 서로 짝트고 엉키며 또 다른 어린날의 추억들을 무수히 불러일으키는 바로 이것이 어머니란 존재가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는 꿈이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는 꿈이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원형으로 되어있는 묘구획에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영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였다. 순간 나는 뜨거운 걱정이 이 가득에 밀물처럼 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영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다! 그이의 이 말씀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가 남년의 차디찬 감방의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못 견디며 듣고싶었던 어머니의 재가 아닌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위대한 어머니는 알고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조선로동당이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어머니 어찌하여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하고 그 슬하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지심장으로 절감한 순간이었다. 문득 나의 뇌리에는 너 무도 무심히 위외부던 시 《어머니》의 구절이 되새겨진다. 그대는 어머니! 피도 슬결도 다 나누어 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을 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그렇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한가정에서 울려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는 온 나라에 울린다. 우리 인민은 오직 원수님따라,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휘황한 미래의 언덕으로 힘차게 나아가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 전화의 날에 베푸신 승고한 동포애

### 공격개시를 앞두고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지 67일이 지난 주제39(1950)년 6월 27일 서울해방을 눈앞에 둔 무렵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인민군련합부대들의 서울해방을 위한 전투조직과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시다가 공격개시시간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서울에 대한 공격개시시간을 6월 28일 새벽 5시로 정하시였다. 하지만 금방 지난 때를 5시엔 날이 희회 밝아 공격을 하기에는 불리했다. 하나 여기에는 수령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있고 경복궁, 덕수궁, 창경원, 남대문을 비롯한 문화유적들이 적지 않았었다. 만일 어두운 밤에 서울을 공격하여 시가전을 벌린다면 시민들의 생명재산과 문화유적들에 막대한 피해가 미칠것이었다.

### 동포애 어린 회의의정

주제39(1950)년 8월 초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각총사집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때라 회의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려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놓으신 동포애의 정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제부터 서울시민들의 뉘나문제를 토의 하자고 하시는데이었던것이다. 적어간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 긴박한 전사상황이고 더우기는 아직 삼복철이라 서울시민들의 겨울철물나문제가 논의되리라는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일제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미제강점하에서 서울시민들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먹을것도 문제였지만 뉘나문제가 있어 농작물이 팔려가지는 못하였던것이다. 서울지역 인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이 해방된 오늘에 있어서도 그들이 이전과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할수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하시고 서울시민들의 뉘나문제를 풀어주소록 하시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지금도 지구촌의 일각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핵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있다. 북조선이 핵보유를 그만두라는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함 그릇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북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거부감의 발로일뿐이다. 북이 핵을 가진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반세기이상이나 핵위협을 가하고있기때문에 취한 맞대응이다. 북에 있어서 핵은 거리가 멀었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김일성주석의 시종일관한 립장이자 유훈이었다. 김정일령도자의 변함없는 뜻이고 국가정책이었다. 그러나 핵을 거둬주고 세기를 넘길수록 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은 가중되고 핵전쟁마

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이며,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와 같은 모든 전승의 요인중의 하나로 여겼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다.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코허리에 매운 바람이 찜하니 맺힌 눈물이 흐를수 없었는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백년에 고락이 상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세상살이가 다 잊혀진 채 어머니라는 부름에는 눈물이 앞서고 그 모든 감정의 씨앗들이 서로 짝트고 엉키며 또 다른 어린날의 추억들을 무수히 불러일으키는 바로 이것이 어머니란 존재가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원형으로 되어있는 묘구획에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영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였다. 순간 나는 뜨거운 걱정이 이 가득에 밀물처럼 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영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다! 그이의 이 말씀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가 남년의 차디찬 감방의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못 견디며 듣고싶었던 어머니의 재가 아닌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는 꿈이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낸지도 어언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꿈을 꾸고싶어한다.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말이다. ... 오늘 저녁 TV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인민군렬사묘를 돌아보신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자로 키우

는 꿈이 아닐지... 내가 남에서 감수될 때마다 할 때 어머니는 꿈속에서 나타나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교형리들의 고향에 어린 시절을 다스린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다. 어린 시절 장난에 정신팔려 무릎을 꿇고 들어온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던 그 때처럼 말이다.

## 북, 운명의 선택

당한 최선의 선택이고 중대 결단이었다. 북은 그 당위성에 대해 우리 나라처럼 미국에 의해 적대시당하고 핵위협을 당하자고 말할수 없다. 로씨야도 핵무기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폐허로 되었을것이라고 했다. 북미핵대결과 관련하여 전미국부성 로버트 갈투치는

보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인식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부 나라들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조선의 립장에 공감하지 않을수 없다. 로씨야도 핵무기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폐허로 되었을것이라고 했다. 북미핵대결과 관련하여 전미국부성 로버트 갈투치는

리용빈(재미동포)

# 조국통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 프랑스단체 인터넷에 특집

7.4공동성명발표 41돛에 즈음하여 3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1돛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의 자주평화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을 경건한 마음으로 회고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1년 8월 6일 캄보자의 노로동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과 임의의 시각에 만나 조선의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시였다.

1972년 7월 4일 조선의 북남사이에 조국통일3대원칙이 명시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조선이 고려전쟁공화국정부를 세운 반면에 남조선은 미국에 추종하여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결의안》이라는것을 유엔에 들고나오으로써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여러 통일제안들을 내놓으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특히 생의 마지막시각에도 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 유언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였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위업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지향하는 조선의 평화적 발기와 과감한 의지를 적극 지지성원하는 련대성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 공동번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한다

《6.15의 옥동자》이며 민족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가 동음을 멈춘지도 석달이 넘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을 주시하면서 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3년에 착공의 첫삽을 댄 때부터 10년간 개성공업지구는 단순히 북남경제협력사업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해왔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의 탄생과 그 발전의 전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리념적기초이다. 수십년간 서로 반복하고 질서하던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 통일의 관계로 돌려세운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하면서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아름다운 화폭으로 수놓아진 6.15통일시대를 이 땅위에 펼쳐놓았다.

연제가 남조선의 한 기업인은 자기가 개성공업지구에

공장을 세운것은 《분단 국가의 기업인으로서의 소명감 때문》이었으며 《경제교류로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보자는것이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라 민족화합과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아기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마음이다.

경제협력사업으로 통일에 국영인실현에 이바지하려면 남조선기업가들의 소망과 공화국의 승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동포애에 떠받들리어 개성공업지구는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경제특구 자리잡을 수 있었다. 공화국은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방침에서 남조선기업가들이 개성공업지구에 마음놓고 들어와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특혜조치들도 취해주었다.

개성공업지구가 공동번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온 나날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 문화, 현실적조건에서도 능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이 되어야 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준 나날이기도 하였다.

개성공업지구는 건설후 오

늘까지 민족화해와 협력사업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도 기여한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공업지구가 자리잡은 지역은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마주하고있는 군사분계선내이다.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협력과 민족경제의 통일발전 발전을 위해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지역을 대범하게 내주는 용단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철조망이 걷히고 도로가 연결되는 등 개성공업지구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열린 협력의 길은 우리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평화의 길이였고 통일의 길이였다.

남측의 여러 인사들과 언론들도 공화국이 공업지구건설을 위해 많은 무력을 후방으로 옮기게끔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업지구가 군사적으로 완충지대역할을 하는 평화의 상징이자 보루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은 남조선의 구유보수세력이 떠드는것처럼 어느 일방

에게만 이익을 주는 《퍼주기》가 아니며 그 누구의 《돈줄》이나 《밥줄》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돈 버려가는것이 고 북도 우리와 같이 이익을 창출하려는것이이지 《퍼주기》가 어디 있다.》, 《개성공단은 실지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주는 임금액수보다 수십배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있는 곳이다.》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조선기업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들의 총생산액은 2005년에 비해 2012년에는 무려 30배나 장성하였다. 2007년에 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수가 20개미만이였다면 2013년에는 123개로 확대되었다. 공업지구에 연결된 남측기업수는 근 6 000개에 달하며 거기에서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여기에 개성공업지구의 지리적우점이나 공짜나 다름없는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 각종 세금같은것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도 없다. 개성공업지구가 특히 남측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

고있었는가 하는것은 공업지구가 폐쇄되는 경우 하루 피해액만 128만US\$에 달하며 관련된 기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무려 60억US\$에 이른다는 남조선당국의 공식발표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경제협력사업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해온 개성공업지구가 북남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오는 15일에 열리게 된 북남당국실무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루어져야 하는것을 바라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지난은 6.15통일시대가 보여준것처럼 북과 남이 서로 이해하고 민족공동의 리의를 우선시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란 있을수 없다.

《6.15의 옥동자》, 민족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는 공동번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지향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겨레의 통일념원을 답이 집

지난 6일부터 7일사이 판문점 통일각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진행되고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통일각은 판문점 북측지역에 자리잡고있는 단층 건물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멋쟁이집》이라고 불리우신 건물이다.

남쪽을 향하고있는 통일각 정문으로 들어서면 보석 모양주단이 깔려있는 넓은 중앙홀이 있고 그 왼쪽에 널찍한 회담장이 자리잡고있다.

회담장 중심에는 언제나 북남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남측대표들을 기다리고있는듯 커다란 회담탁이 놓여 있다.

회담장을 둘러싼 《C》자형 복도를 따라 북남회담대표단이 리용할 단장실, 대표실, 수련실, 기자단실, 중간휴게실 등 회담장장을 위한 여러개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통일각에는 연회장과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이 그치지 갖추어져있어 북남회담을 하거나 통일행사를 치르기에 는 나무랄데가 없

는 집이다.

통일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밟아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심으로써 건설된 뜻깊은 집이다.

1984년 초가를 공화국이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준것을 계기로 북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될것이 예견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판문점에는 판문각이 있었지만 북남회담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친히 리용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북남회담을 할수 있는 집을 한채 잘 지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설계도면을 친히 보아주시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통일각》이라고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훗날 이때를 회고하시며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995년 8월 11일 통일각에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수령님의 통일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통일의 상징으로 훌륭히 건립되었다.

통일각은 준공후 북남회담 장소로 리용되어왔다.

통일각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집이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뜻깊은 한페이지를 새긴 제1차 범민족대회가 바로 이 통일각에서 막을 올려 민족단합과 자주적통일운동의 새 전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통일각에서는 해마다 8.15를 계기로 범민족대회와 각종 통일행사가 벌어져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단합된 위력과 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통일각은 통일선각자들의 발자취도 력력히 어려있는 뜻깊은 집이다.

《통일할머니》 박용길녀사, 남조선대교회의 안호상 총신교인행 등 수많은 남조선의 통일에국인들, 통일사절들이 이 집에 들러 통일을 웨치고 외새가 만들어 낸 분계선을 박차며 남으로 내려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지난해 3월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시찰하시면서 통일각을 돌아보시고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통일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통일의지가 깃들여있는 통일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그 이름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말마전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5일 제3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는 6.15의 귀중한 열매이며 민족공동의 재부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환영하면서 북과 남이 손을 잡고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할것을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 민주당은 《개성공단과 북남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땀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경협의 최후보루이자 상징인 개성공단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은 물론씩 막대한 남북관계를 뚫어내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 《남북대화와 교류를 더욱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 남조선 각계의 반향 ◇

한편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나고있다.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고 하면서 《경제협력, 평화통일의 새 지도를 그리자는 10.4선언의 합

계협력, 평화통일의 새 지도를 그리자는 10.4선언의 합

계협력, 평화통일의 새 지도를 그리자는 10.4선언의 합

의정신을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문제를 토의하는 북남당국실무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개성공업지구 남측기업관계자들도 《합의소식을 듣고 감정에 북받쳐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공단사태로 많은 우려곡절을 겪고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격동된 심정을 표명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가동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이처럼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 남조선 단체가 당국의 무분별한 폭압소동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5일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무분별한 폭압소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경찰당국이 단체성원들의 전자우편을 조사하는 탄압소동을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악명높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뻔뻔스러운 령도강탈놀음

7월 9일 일본당국이 내각회의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저들의 령도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2005년 방위백서》에 이러한 뻔뻔스러운 주장을 올린 후 계속 반복되고있는 놀음이다.

일고의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며 제침의 이발을 가는 군국주의독사의 본성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생역지를 쓴다고 하여 남의것이 제것으로 되는 법은 없다.

독도는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상으로도 보나 명백히 조선의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엄연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가 저들의것이라고 강짜를 부리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력사를 심히 위곡하고 독도문제를 꺼내두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를 타고있는 것이 일본에게 그러도 소년인 가까운 무엇인가.

독도강탈을 시작으로 조선에 대한 제침을 실현하고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헛된 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자는것이 일본의 속심이다.

그래서 일본은 력사교과서들에 《독도는 일본명》이라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공화국의 《비핵화》를 운운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토의하는 6차회담이 재개되면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북핵포기》를 또다시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저들의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방적인 주장일따름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미국에 의해 발생되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거듭되는 참예를 만회해보려고 원자탄사용까지 기도한바 있는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주둔 미군에 대한 핵무장화에 각수하고 《오네스트존》 핵비싸일대, 280mm원자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그후에 미국제 핵무기는

##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신형 핵무기반입책정은 절정에 달하였는바 1980년대초 그 어느 해외주둔 미군에도 공급하지 않은 155mm핵포탄, 항공용 핵폭탄, 핵지뢰 등이 남조선 각급 미군에 배치되었다.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무기는 그 배비밀도에서 1990년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 있어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 000배

이상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핵폭탄, 미싸일핵탄두, 중성자폭탄과 핵포탄, 핵지뢰와 핵해당등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전개되게 되었으며 남조선은 100㎏당 1개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된 세계 제1위의 핵강대국이 되었다.

지금도 미국은 이른바 로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방대한 핵무기를 제한없이 끌어들이고, 중간에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2011년 2월 미국 대량살상 무기정착조정관 세이머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이나 핵지미군기지 등 조선반도리근의 핵전력

으로 남조선을 충분히 방어할수 있다.》고 공언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핵항모모함대 이지스순양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이 공화국을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 세력들이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은 여기에 《3대핵우산》의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운동 전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당반우에 울려놓고 그 누구의 《핵문제》, 《핵위협》을 떠드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특히 친미공중이 골수에 베긴 남조선의 현 《정권》은 발족하기 바쁘게 미국상전을 찾아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한》 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라느니 뉘니 하면서 《《한》 미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오 래전부터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더욱 조장해온 추악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광성

《핵무기없는 세상》을 제창하면서도 조선반도에서는 핵위협을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미국은 이미 2009년 남조선과의 제41차 념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과 재래식타격능력, 미싸일방위체계 등 《확장억제력》을 남조선에 제공한다는것을 공화국신문을 통해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이란 남조선을 핵우산으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각계층의 반《정부》초불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초불의 배후는 누구인가

지난 6월 초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국정원》해체, 《국정원》이 만든 헌(정권) 퇴진 투쟁은 광주, 부산, 대전, 창원을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지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동포들이 살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란하는 초불시위를 벌였다. 오늘 《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성토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은 리명박의 집권초기에 일어난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초불투쟁 이후 처음으로 광범한 계층의 참가하에 지속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추겼다.》 그것이 그의 골자이다. 심지어 저들의 허튼 주장을 안받침하기 위해 공안기관을 내세워 《광우병초불을 움직인 검은 세력(종북세력)》 다시 등장하고 있다.》, 《초불시위를 부추기는 특정세력이 집조직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각종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공안기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억지주장도 펴고 있다.

나 야당후보를 비방증상하는 91건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41년전 미국대통령 닉슨이 쫓겨난 《워터게이트사건》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한 야당의원은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이 《대선개입》을 지시한 자료들을 《국회》에서 폭로했다.

그뿐만아니라 집권보수세력의 기반으로 불리우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도 반《정부》초불집회가 진행되고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북이 《대선》 무효 및(정권) 퇴진을 위한 선동을 하고 있다.》, 북이 《초불집회에 의한 정국의 혼란을 남북대화에 활용하려 한다.》, 《얼마전에도 북이 반제민전과 같은 대남선동조직을 통해 초불집회를 부추겼다.》는 것이 그의 골자이다.

《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야당에 의해 적발된 정보원내 직원들이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새누리당》을 일반적으로 편들거

는 91건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41년전 미국대통령 닉슨이 쫓겨난 《워터게이트사건》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한 야당의원은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이 《대선개입》을 지시한 자료들을 《국회》에서 폭로했다.

떨쳐나섰것은 너무나 응답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북의 사주》, 북의 《중조》를 받는 《검은 세력》에 의한것으로 몰아가고있으니 참으로 속물이 바르지 못하고 반북대결을 발탁한 자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초불의 배후에는 그 누가 아닌 남조선인민들이 있다. 《배후설》의 목적은 뻔하다.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초불투쟁을 《중북》으로 몰아 거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동족에 대한 악의적모략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모욕하려 든자들은 레외없이 정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남조선의 집권보수세력은 동족을 결고있는 고약한 악습을 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배영일

# 극렬한 투쟁에 대한 엄중한 대비

최근 남조선의 《련합뉴스》가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고결한 충정을 약탈하게 모독하고 헐뜯는 비열한짓을 저질러 만민의 분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일본해안에서 위대한 대인수님들의 초상화가 훼손되지 않게 정중히 모신 통을 가슴에 품은 공화국선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되받아우면서 《북선원시신에서 초상화가 발견된것도 자신과 가족들이 처벌받을것을 우려했기때문》이라느니 하고 헛나발을 불어냈다.

《련합뉴스》가 일본의 반동언론과 쌍나발을 댈어대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민족의 아버지들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선인들의 순결한 충정을 모독하고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를 비방증상한것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극악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공화국의 선원들은 뜻하지 않는 최후의 정황속에서도 자기 수명을 열어나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숨결로 이어진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자기들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불굴의 소행은 결코 그 어떤 강요나 일시적충동으로는 발휘할수 없는 것이다.

령도자의 사상과 인덕에 매혹되고 수령의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사랑에 심장을 바치며 숨결도 운명도 같이 하는 공화국의 군민만이 발휘할수 있는 숭고한 모습이며 인류력사에 그

를 찾아볼수 없는 최고의 사상정신적 미덕인 것이다.

그때 《련합뉴스》관계자들은 큰물과 화재로 집가산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잃으면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나오는 북의 인민들의 수많은 소행자료들에 대한 공화국 언론들의 보도를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말인가.

자기 하나의 안락과 돈밖에 모르는 자본의 노예들, 황금만능을 인생판으로 여기는 인생의 라락자들의 머리로는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인생철리를 절대로 리해할수도 흥내낼수도 없다.

객관성과 진실성이 언론의 생명이긴대 그대도 남조선언론들중에서는 《공정성》이 있다고 자처하던 《련합뉴스》마저 도덕과 상식이 결여된자들이나 제철 이따위 너털한 보도를 함부로 내뿜고있으니 분노를 넘어 가극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련합뉴스》와 같은 매독언론들이 아무리 험담을 해도 그것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앞에 질겁한자들의 가련한 비명오락밖에 여기지 않는다.

《련합뉴스》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악선전으로 공화국의 참모습을 호리케 하고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것은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중해야 한다.

박철남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 민심기반의 《개혁》 놀음

최근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을 계기로 민심의 원성이 높아져서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이 《정보원개혁》을 운운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정보원개혁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조선당국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개혁방법과 방향이 황당하기 그지없어 각계층의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정보원 자체개혁안》이 바로 그것이다. 즉 개혁대상인 정보원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자체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남조선 《정국》을 소란케 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으로 말하면 정보원이 지난 《대선》시기 《새누리당》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야당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범 죄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범인 정보원으로서 사실 《개혁》이 아니라 심판대우에 올려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장본인을 처벌은커녕 《개혁》의 《담당자》로 내세우고 있으니 남조선 각계가 《중환자에게 수술칼을 맡기는 꼴》, 《도적에게 도둑잡으란 말》이라며 야유조소하

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긴 정보원의 비법적인 《대선개입》으로 《정권》을 탈취한 헌 남조선당국이 정보원에 직접 수술칼을 들리는 만무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정보원개혁》 놀음은 분노한 민심을 농작하며 기만적인사로 사건의 진상을 덮어보려는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에 속아넘어갈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다. 기만적인 《정보원개혁》 놀음이 초래할것은 민심의 더 큰 규탄배격박에 없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지금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제9차 남조선 주둔 미군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비율을 50%까지 올리라고 강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남조선이 부담하는 남조선주둔 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식민지종주국의 강도적전행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굴욕강요행위가 아닐수 없다.

사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미군유지비를 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철두철미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기여하여 한것이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뜨우고 남조선에서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온갖 야만범죄를 저지른것밖에 없다.

오늘도 남조선강점 미군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더욱 고조되고있으며 치외법권적인 미군의 범죄행위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커지고만 있다.

그런데 제 집으로 돌아가는커녕 오히려 유지비를 더 내라고 강요하고있으니 날강도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군유지비는 다름아닌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짜낸 돈이다.

# 강점민민의 전쟁행

그런 현실을 침략군, 강도의 무리에게 그것도 해마다 불어가며 섬겨바치는 것이야말로 굴욕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뜨내기생활로 연명하고 있는가 하면 집 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또 절대빈곤층 570여만명,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250만명 등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이 1 0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엄청난 등록금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매일 각종 범죄사건이 6 000여건씩 발생하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미군유지비로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돌려면 남조선의 실업률을 현저히 줄일수 있고 전체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킬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피줄을 이은 동족을 침략하기 위해 남조선에 도사리고 있고 더구나 돌아가려 갖은 범죄나 저지르는 미군에게 막대한 돈을 진상하는 것이야말로 죄악중의 죄악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는것은 곧 용서받을수 없는 매국매족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수치스러운 미군유지비협상을 걸어치워야 할 것이다.

7월 7일 서울 한복판에서 주민에 대한 남조선강점 미군의 구라범죄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날 새벽 택시를 타고 돌아치던 미군쌍패들은 운전사가 택시값을 요구하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미군이 내지 않았다고 양탈을 부린 택시값은 남조선돈 1만 8 500원으로 1인당 9 25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미군에게 이만한 돈은 새밭의 피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미군이 빼앗아가는 미군유지비는 《미군주둔비용

에 관한 특별협정》이 적용된 1991년 당시에 비해 거의 8배인 8 69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나누어도 남조선주둔 미군 1명당 무려 3천만원에 해당된다.

이번 구라범죄의 구실로 된 택시값은 그

3 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어린 미군유지비로 흥청망청하다 못해 몇푼 안되는 택시값도 내기 싫어 범죄를 일삼고있으니 미군이야말로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빼고 싶어하는 강도중의 강도가 아닐수 없다.

김국철

#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분부가 3일 제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족족발의 전쟁위기가 계속되는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체결 60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이상 핵전쟁위협속에서 살수 없다고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연명하였다.

평화협정은 진보세력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울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합칠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주축으로 27일까지 전지역을 순회하며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행진을 벌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린 조선전쟁

1953년 7월 27일 이날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낸 우리 민족의 반외세투쟁의 력사에 전승의 날로 뜻깊게 아로새겨진 날이다. 반면에 강대성의 《신화》를 떠들며 강소한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 미국에 있어서 이날은 력사상 가장 쓰디쓴 참패와 수치를 맛본 비극적인 날이다.

《나는 모든것이 실재라는 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입자들인 맥아더와 린치웨이장군들도 동감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시 관문점에서 조선전쟁협정조인식에 참가한 미국동조선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에 대하여 개탄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인디안들을 다치는대로 살육하고 그들의 피로 세워진 미국의 력사는 침략과 약탈로 이어졌다. 미국은 국가형성후 약 130년동안에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110여차례의 침략전쟁과 8 900여회의 군사적간섭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 이 기간 미국은 언제 한번 패전한적이 없었으며 세계대전을 비롯한 모든 전투들에서 언

제나 《전승》만을 자랑해왔다고 한다. 하기에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공화국이 승리하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위력을 시위하고 사회주의력량을 제압할 목적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힘을 총동원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특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체들을 다 동원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투하한 군수물자의 수량만 해도 7 300여만에 달하였다. 당시 미군부우두머리들은 저들이 72시간만에 《조선전쟁을 결속시킬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것을 전제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너무도 몰랐다.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돋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수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공화국은 미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다. 이 기간 미국이 입은 정치군사적손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의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 전쟁, 메히코전쟁, 미에(미국-에스파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얻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썼다.

우려와 불안속에 조선전쟁을 지켜보던 세계는 미국의 《강대성》을 빈말뿐이라는 것을 현실로 체험하였다.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3년간의 지난 조선전쟁은 강철의 령장의 탁월한 령도의 승리,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군사기술적우세에 비한 정신도덕적,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여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전쟁이 끝난지 60년 세월이 되어오지만 공화국

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도발과 침략전쟁연습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한사람같이 일떠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피의 위력으로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는 수호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정전협정체결 60년이 되는 7.27을 계기로 저들의 참패가 너무도 수치스러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던 조선전쟁을 《잊혀진 승리》로 외곡하며 기념하는 광대극을 벌리고 있다. 이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을 벌리겠다는 속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전승의 7.27을 안아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만일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원수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올 의지로 총만뎌버린다. 침략정체속에서 날뛰는 호전정권들은 미국을 사산력일의 운명대로 몰아넣는 력사의 7.27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강점마을화와 제주해군기지건설중지를 위한 전국대행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기지공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군당국이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로 강점마을을 앞바다가 심히 오염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군당국이 공사를 중지하고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걸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손색없이 꾸려진 축구선수후비양성기지

## \*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아서 \*

얼마전 내외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개교식이 진행되었다. 1만여㎡의 면적에 현대적인 교사와 운동장, 기숙사와 문화후생시설을 갖춘 평양국제축구학교는 나라의 축구선수후비양성을 위한 교육기지이다.

얼마전 기자는 대동강이 감돌아흐르는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위치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았다. 2층으로 된 학교건물앞에 이르지 정면이 나뉘는 《평양국제축구학교》마크가 눈길을 끌었다. 기자와 만난 현철윤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축구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축구선수후비양성기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하면서 《축구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며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상징종목》이라고 말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정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국제축구학교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을 보내주시어 오늘 평양국제축구학교가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었다는 그의 이

야기를 들으며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해빛밝은 교실들마다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이 그쁘게 갖추어져 있었다. 소학반 4학년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수학과목학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현철윤교장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 현대적인 국제통신망체제와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세계축구관련자료들을 마음껏 보면서 시야를 넓힐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축구전문가들을 초청도 하고 류학을 지망하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도 받아들여 교육하게 된다고 한다.

맑고 푸른 대동강이 바라 보이는 경치좋은 곳에는 학생기숙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학생들이 언제나 맑고 청신한 환경속에서 학습도 하고 마음껏 뛰놀며 생활할수 있도록 꾸려진것이 마음에 들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뛰놀며 생활할수 있도록 꾸려진것이 마음에 들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뛰놀며 생활할수 있도록 꾸려진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생각은 학생들이 리용하는 식당을 돌아보는 과정에 더욱 깊어졌다. 아직은 나라에 부족한것이 적지 않지만 나어린 축구선수후비들에게 대한 영양공급은 매우 높

은 수준에 있었다. 현철윤교장은 얼마전 학교에 찾아오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축구는 유체적으로 소모가 많은 체육종목의 하나인것만큼 학생들을 잘 먹여야 한다고, 매 학생들의 건강상태, 식생활관습 등을 고려하며 개별 영양분배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급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자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고싶어 찾아온 학부모들은 학교가 정말 멋있다,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랑을 다 돌려주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자식들이 훌륭한 축구명수가 되어 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리성일

# 대담 전망성있는 축구선수후비들로

지금 새로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기대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 학교의 현철윤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받아 교육하는가?  
현철윤: 현재 우리 학교는 소학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들은 선수생활을 계속 할수 있고 희망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수 있다.

기자: 학생선발은 전국의 청소년체육학교 축구소조생들과 축구학급 학생들 가운데서 학습과 조직생활에 모범이면서 축구기초기술과 육체적 조건이 뛰어나 소년, 소녀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선발 대상의 나이가 어린 조건에서 현재는 별로 눈에 띄우지 않

지만 앞으로 크게 발전할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선발은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계속되고있으며 뛰어난 선수후비는 언제든지 편입 또는 입학할수 있다.

기자: 학교의 교육내용은?  
현철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실기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교육은 일반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기자: 하루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실기수업을 진행하는데 자연잔디와 인공잔디 축구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학교학생들에게 실기 국제경기들에 진출할 기회가 차례지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자: 그러면 교원력량이 강해야 한다. 지금 우리 학

교에서 일반교육을 하는 교원들은 모두 선발된 우수한 실력가들이다. 실기교원들의 능력과 만만치 않은데 전국청소년체육학교 체육경대회들에서 여러차례 이들을 낚린 선수출신의 젊은 교원들과 국제축구련맹에서 우수한 감독이라고 인정받은 감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자: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교원으로 활동할것에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에 따라 여러 나라와 지역의 학생들도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 학생들이 축구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에 가서 교육을 받을수 있다.

기자: 우리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고 관리운영을 짜고들어 전망성있는 축구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된 공장

## \*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

얼마전 평양기초식품공장이 개건현대화되어 질 좋은 기초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기초식품이란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기초적으로 쓰이는 간장, 된장, 기름, 맛내기를 비롯한 식료품을 말한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평양시민들에게 기초식품을 생산 보장하는 곳이다. 최근 이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반생산공정의 자동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이곳 공장의 손현철기사는 10여개의 대상들을 새로 건설하고 20여개의 대상들을 개건보수하였으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였다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공업대학, 국가 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대학, 연구기관들의 과학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전반적인 통합생산지령체계를 실현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매 생산공정들에 부분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생산지령체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합지령성을 통하여 공장전반의 전력

관리와 증기관리, 물관리뿐 아니라 원료 및 반제품, 제품들에 대한 계량도 하고 생산물의 질이 품질규격에 맞지 않으면 생산을 중지할수 도 있으며 품질을 높일수 있는 최방향을 도출하는 등의 품질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의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컴퓨터화면과 지령전화화를 통하여 손쉽게 합리적인 조직진행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새로 꾸린 정제기름, 맛내기, 정제소금, 비타민E 및 레시틴의 생산공정과 포장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화한것도 개건현대화에서 이룩된 성과중의 하나이다.

손현철기사는 기술개선을 남의 힘과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공장의 기술자들과 여러 대학, 과학연구부문의 연구사, 과학자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해법을 모색 원료와 기계설비들을 국산화한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였다.

정제기름생산공정을 꾸릴 때 인력이다. 5.0짜리 기름통을 4개씩 포장하여 보내

는 호르몬에는 직선으로 흐르던 기름통을 수직으로 방향을 돌려보내는 자동밀개장치라는것이 있는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이 장치를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보트공학 연구소 과학자들이 기발하게 착상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제기름생산공정을 무인화하는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자동화, 무인화, 국산화 실현되니 제품의 질적수준은 저절로 올라 공장의 기초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적수준이 높아진데 맞게 기초식품의 질을 더욱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새 제품들을 수없이 개발하여 내놓았다.

손현철기사는 《앞으로 우리의 제품은 물론 국외에서도 경쟁력있는 식품으로 인정받도록 하는것이 목표》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간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박금일



모든것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원립화, 수립화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자아낸다.

공장주내의 중심으로 일대지게 뻗어간 도로며 연미색타일로 장식한 절을길들, 질서있게 배치된 태양전지전등과 가로수, 아담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현상시킨다.

구내에 활짝 피어난 장미꽃을 비롯하여 이팝나무, 북

나무, 전나무, 느티나무들이 숲을 이룬 공원에서 울리는 새들의 청아한 지저귐소리는 공장주내라기보다 어느 아늑한 휴양소에 들어선듯 한 느낌을 준다.

그런가하면 멋있게 꾸려진 드넓은 운동장에서는 청춘남녀들이 활기에 넘쳐 룡구, 배구, 정구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고있다.

공장의 외부에는 푸르스름한 녹음우거진 일터가 있다. 푸르스름한 녹음우거진 일터가 있다. 푸르스름한 녹음우거진 일터가 있다.

묵지 않게 내부 역시 현대적으로 꾸려져 위생문화화, 무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깨끗한 일터에서 인민들에게 보내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기초식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평양랭면과 함께 30여년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평양랭면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시원하고 산뜻한 입맛, 독특한 향취로 하여 널리 소문난 평양랭면, 세상사람들이 《꿈에도 먹어보고싶은 천하제일음식》으로, 한번 평양랭면의 일생토록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유명한 평양랭면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그림처럼 솟은

### 소문난 평양랭면의 비결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보기 좋은 몸매, 순후하고 지성 미 넘치는 얼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실리는 가는 주름살만 아니라면 나이에 비해 젊어보일 라속경기사장은 첫 인상에 마음고운 보통녀 인같았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 이사장이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화로 혹은 구두로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그의 높은 사업능력과 일본새를 느끼게 해주었다. 평양랭면의 련사와 조리방법에 이르까지 모르는게 없을상실은 해박함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오래전부터 장수식품으로 일러왔다. 메밀국수오리는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먹기에 맛좋은데다가 메밀에서 나는 고유한 맛은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어준다.



속물맛도 특별하다. 평양랭면은 평양지방에서 나는 유명한 동치미물이나 고기국물에 말기때문에 다른

《23살에 유류관리사로 배치되었을 때부터이니 꼭 서른세해제이다. 평양랭면과 함께 나의 후반생이 흘러온셈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류관리사로 갔 배치되었을 때만 해도 에티를 벗지 못한 책상물림에 지나지 않은 라속경기사장이었다. 그런 그가 실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다지고 경험을 쌓으면서 보통 라사로부터 작업부장, 급양지도원, 직장장, 기사장으로 성장했다. 라속명수자격과 로리최고급수를 받은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평양랭면전문가이다.

《유류관에서 평양랭면을 잘 만드는것으로 소문이 났는데는 학위논문제목과 《자동화식품속육수제조장치와 제조방법》, 《닭알절단기》, 《후추알분쇄기》 등 라속경기사장이 받은 수많은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들에는 어떻게 하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평양랭면을 더 잘 만들든가 하는 일념으로 남모르는 밤과 열정을 다 바쳐온 그의 숨은 노력이 숨배어있다.

평양랭면은 국수를 마는 육수물맛도 특별하다. 평양랭면은 평양지방에서 나는 유명한 동치미물이나 고기국물에 말기때문에 다른

《유류관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류관리사로 갔 배치되었을 때만 해도 에티를 벗지 못한 책상물림에 지나지 않은 라속경기사장이었다. 그런 그가 실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다지고 경험을 쌓으면서 보통 라사로부터 작업부장, 급양지도원, 직장장, 기사장으로 성장했다. 라속명수자격과 로리최고급수를 받은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평양랭면전문가이다.》

《유류관에서 평양랭면을 잘 만드는것으로 소문이 났는데는 학위논문제목과 《자동화식품속육수제조장치와 제조방법》, 《닭알절단기》, 《후추알분쇄기》 등 라속경기사장이 받은 수많은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들에는 어떻게 하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평양랭면을 더 잘 만들든가 하는 일념으로 남모르는 밤과 열정을 다 바쳐온 그의 숨은 노력이 숨배어있다.》

### 음식 맛은 손맛

오늘 유류관을 찾은 해내의 동료들과 외국인들이 《조선민족의 자랑》, 《최고의 맛》이라며 찬사를 하지 않는 평양랭면의 독특한 맛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과 향취를 더 잘 살리기 위해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그 조리법을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운 라속경기사장과 유류관리사들이다. 《평양랭면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오는 요구》라는 학위논문제목과 《자동화식품속육수제조장치와 제조방법》, 《닭알절단기》, 《후추알분쇄기》 등 라속경기사장이 받은 수많은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들에는 어떻게 하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평양랭면을 더 잘 만들든가 하는 일념으로 남모르는 밤과 열정을 다 바쳐온 그의 숨은 노력이 숨배어있다.

지방의 메밀국수보다 맛이 시원하고 달며 새콤하므로 뒤맛을 감치게 한다.》

라속경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평양랭면은 국수말기도 독특하다. 평양랭면을 말 때 시원한 감을 주는 늦대접에 육수를 조금 두고 국수를 사서 서서히 담는 다음 그우에 김치, 고기, 닭알, 배, 오이 등의 순서로 꾸미를 얹고 실과, 실고추로 고명하는데 이렇게 말아낸 평양랭면은 맛이 좋을뿐 아니라 결빙기와 차림새에서 특색이 있어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벌써 17세기 전반기에 널리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동국지서》에도 메밀국수를 무우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넣은 것을 랭면이라 하는데 판서지방의 국수가 제일 좋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유명한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국내에서 유류관을 찾는 손님들을 봉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하자 그는 《사실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 명절날에도 봉사하느라 면 힘들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성의가 깃든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를 맛나게 드는 사람들을 보느라 집중으로 고기쟁반국수가 지난날 특권층들만이 해먹던 중중음식으로부터 근로하는 사람들이 먹는 대중음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정다운 안해, 살뜰한 어머니

—휴식일에는 어떻게 보내는가? 《녀자들은 집에서 할 일이 많다. 집안랴를 거두고 빨래감도 처리하고... 밀렸던 잠도 봉창하곤 한다.》

밖에서는 한개 기업소일꾼이지만 가정에서 들어가는 정다운 안해, 살뜰한 어머니인 라속경기사장이었다. 그에게는 휴식일에 빼놓지 않는 일과가 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비빔밥이든 팔단자, 명태운량, 약과 등을 만드는 일. 평시에는 일이 바빠 음식을 랭동기에 넣어두었다가 공해먹곤 하지만 이런 날에만은 식구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만드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다.

명절날, 일요일에조차 직장에 나가 살다시피하는 라속경기사장이어서 그가 쉬는 날은 식구들이 기다리는 《명절날》이다. 《자식들이 내가 쉬는 날이면 저녁에 집에 빨리 오고싶어 안달이 나 한다.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뭘 먹어 달라고 하는데

그럴때 보면 꼭 철부지아이 같다.》

오는 8월 라속경기사장은 가족과 함께 송도원해수욕장에 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언제부터 간단간단하면서도 시간을 내지 못했던 피로도 받아들이며 그 준비로 들떠있다고 웃었다.

라속경기사장이 여름휴양지를 바다가로 정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시원한 바다바람도 맛고 해수욕도 하면서 평양랭면의 질을 보다 높이는것과 관련한 새 발명안을 무르익히려는 것이다.

《평양랭면은 우리 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사랑한 민족음식이다. 맛과 냄새, 색깔에서 독특한 평양랭면과 같은 우수한 민족요리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면서 라속경기사장은 《민족요리를 발전시키는데서 유류관이 앞서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라속경기사장 (왼쪽에서 두번째)

# 반만년민족사를 체계화한 역사총서들

## 《조선단대사》와 《조선부문사》

최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과학백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역사총서인 《조선단대사》(전 38권)와 《조선부문사》(전 40권, 개정판)를 성과적으로 편찬발행하였다.

과학백사전출판사에서 발행한 전 38권으로 된 《조선단대사》는 단군조선성립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와 중세 국가들의 존립순위에 따라 통사체와 부문사체를 결합시키고 높은 과학리론성과 통속성을 보장하여 풍부하게 서술한 역사총서이다.

《조선단대사》는 고조선사, 부여사, 구려사, 진국사, 고구려사(전 5권), 백제사(전 2권), 신라사(전 3권), 고려사(전 5권), 조선봉건왕조사(전 13권, 그 중 문화편 1권), 년표(전 2권)로 구성되어있다.

《조선단대사》에는 지난

세기에 편찬완성된 《조선전사》가 나온 후 공화국의 역사학계가 거둔 제반 연구성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다. 《조선단대사》에는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무덤이 발굴됨으로써 새롭게 해명된 단군고조선의 성립시기를 비롯하여 초기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년대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충되었다.

또한 우리 민족사발전에서 선조적역할을 한 고구려의 지위와 발전과정 그리고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등이 땅에 존재했던 중세시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미친 고구려의 막강한 영향에 대해서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서술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겨레의 자랑찬 투쟁력사와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조선단대사》(전 38권)가 나오으로써 주로 시대별, 시기별로 나누어 서술한 지난 시기의 역사도서들과는 달리 우리 민족사를 첫 고대국가 단군조선이나 천년강국으로 자랑높았고 후세발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고구려를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한 국가별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단대사》가 성과적으로 발행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고수하고 끝없이 빛어나갈 수 있는 사상리론적 및 과학적토대를 더욱 든든히 갖추게 되었다.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전 40권으로 된 《조선부문사》(개정판)는 우리 겨레의 반만년민족사를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역사총서이다.

이제 2010년에 《조선정치제도사》,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 《조선풍속사》,

《조선음악사》, 《초기조일관계사》를 비롯하여 20권의 부문별도서들이 발행된데 이어 지난해에 역시 20권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발행됨으로써 《조선부문사》(개정판)의 발행이 전부 끝났다.

《조선단대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발행된 《조선부문사》(개정판)의 도서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분야에 대한 역사연구에서 학술적의 것으로 있고 자료적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있다.

지난해에 새로 발행된 《조선부문사》(개정판)의 부문별도서들 가운데는 《조선농업사》, 《조선수공업사》, 《조선수공업사》(전 2권), 《조선교통운수사》와 같이 원시, 고대, 중세, 근대 등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세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이 려면히 새겨온 다양한 경제분야의 발전력사를 서술한 가치 있는 도서들도 있다.

역사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기록된 교육발전과정을 주제적립장에서 연구해 명하고 체계화한 《조선교육사》, 근대에 국문화운동의 발생과 발전,

최외과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고 매 역사적단계에서 문화계몽운동의 주요 형태와 내용 및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조선근대에 국문화운동사》, 원시사회로부터 근대까지의 민족체육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조선체육사》, 원시공예의 발생으로부터 봉건사회말기까지의 공예발전력사를 취급한 《조선공예사》를 비롯하여 《조선조각사》, 《조선건축사》와 같은 문화분야의 풍부한 역사자료들이 들어있는 도서들도 독자특독에서 널리 읽히고있다.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 때까지의 기간에 매 시기 존재한 근대의 계급신분구조, 편성원칙, 중앙군과 지방군, 병종, 군주구성, 지휘체계, 군사제도의 개편과 변화 등을 폭넓게 서술한 《조선군사제도사》(전 2권),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활기찬 투쟁과정에 일찌기 고대부터 수군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수군사를 빛낸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담고있는 《조선수군사》도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역사총서 《조선단대사》(전 38권)와 《조선부문사》(전 40권, 개정판)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역사지식을 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 《아리랑》 공연을 최상의 수준에서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책임연출가 김금룡과 나는 이야기

기자: 이제 곧 시작될 김일성장세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크다. 김금룡: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평양의 5월1일경 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이 시작되게 된다. 공연에서는 세계 《회향》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라하고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인공지위성제국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도업적과정에 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날이 부강변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펼쳐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수난의 아리랑이 절세인민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어떻게 승리의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으로 승화되고있는가를 감동깊은 화폭속에 보여주게 된다. 기자: 지난 시기와 다른 이번 공연의 특징은 무엇인가. 김금룡: 오늘의 거창한 현실은 창작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아리랑》 공연

을 또다시 시대적명작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 시기 꽃다발을 들고 명절웃차림을 한 녀성들의 첫 출연으로 시작되던것과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출연자는 한명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을 비롯한 특수효과들로 경축분위기를 한껏 살리게 된다. 그리고 제1장 3경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력사적인 인연을 하시는 장면을 옥색복음과 함께 펼쳐머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제5장 천성아리랑 형상의 폭을 넓힌것이라든가 케도축포를 리용하여 봉화를 지펴 올리는것을 비롯하여 조명과 장치 등 형상부분에서도 혁신적인 창조물들이 많이 도입되게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성공은 배경대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번이 배경대에는 력사적인 내용들을 실감있게 펼쳐 공연의 품격을 더욱 돋구게 될것이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승리의 아리랑, 경축아리랑으로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것이다. 기자: 현재 공연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김금룡: 출연자들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이미 6월 중순에 모든 장, 경들의 틀거리를 갖추었다. 출연자들의 대부분이 이번 공연에 처음 참가하고 많은 부분을 새로 창조해야 하지만 그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우리는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투쟁분배를 따라배워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장, 경들을 만장자리로 만들어내겠다. 김일성장세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7월 22일부터 막을 올리게 된다.



은 나라에 제 2. 제3의 《마식령속도》 창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국제체육무대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승하는 기쁨의 소식들이 려이어 전해지고있다.

아시아경기계의 패권을 쥔 조선

얼마전 까자호스판의 수도 아스파나에서 2013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중국, 이란, 웰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대북 등 19개 나라와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력기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기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쟁취함으로써 나라별메달획득순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김은국, 엄윤철선수들은 남자 62kg급과 56kg급경기에서 출전하여 국제적인 경기진법과 높은 기술로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1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각각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랑춘화, 려은희선수들도

# 세계체육계를 놀려주는 권이은 경기성과

기자: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있는 스키운동은 스키운동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중적인 체육종목으로, 겨울철의 인기있는 운동종목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여러가지 명칭의 국제스키경기들이 진행되는데 스키경기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따라 세 부종목들이 새롭게 등장하고있다. 거리스키, 조약스키, 북방형스키복합경기, 고산스키와 함께 스키코에, 스키무용, 자유형스키, 판스키, 판스키기교 등 다양한 기술과 기교로 이루어진 스키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경기종목들은 훌륭하게 뛰어넘는 스키주로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종목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스키주로의 너비와 길이, 경사각을 각이하게 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스키주로의 너비는 30~40m, 길이는 300~3 000m, 경사각은 15~35°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한개의 스키주로를 가지고는 여러 종류의 스키경기를 진행할수 없다.

이런에 김국광선수수는 준결승경기에서 아시아적으로 레스링기술이 우세하다고 하는 이란선수와의 대결에서 처음 먼저 점수를 잃었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역습을 이어 련속 점수를 올림으로써 8: 5로 이겼다. 훌륭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주체적인 경기전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이익차이로 싸워 승리한것은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선수들이 려이 올리는 승리의 개가는 겨레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추운 겨울철에 눈길 위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종목인 스키운동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 주고 민첩성을 높여주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킨다.

오늘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있는 스키운동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중적인 체육종목으로, 겨울철의 인기있는 운동종목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여러가지 명칭의 국제스키경기들이 진행되는데 스키경기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따라 세 부종목들이 새롭게 등장하고있다. 거리스키, 조약스키, 북방형스키복합경기, 고산스키와 함께 스키코에, 스키무용, 자유형스키, 판스키, 판스키기교 등 다양한 기술과 기교로 이루어진 스키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옛날 청주사람과 죽림호, 동경귀 셋이 어울려서 말 한 말을 샀다. 청주사람이 제일 앞서 먼저 허리를 사고 그 다음 죽림호는 대가리를 사고 동경귀는 꼬리를 샀다. 청주사람이 예의를 하기를 《타기는 허리를 산 사람밖에 탈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주사람이 말에 올라 어디나 향하고싶은대로 향하면 죽림호는 말에게 꿀을 먹고도 또 그 대가리를 끌어야 했으며 동경귀는 그릇을 들고 똥오줌을 받아야 하였다.

《그때 네 손에 무엇이 만져지지 않느냐?》 뽕뽕하고 기다란것이. 《응, 그대.》 하고 동경귀가 대답하자 청주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그 뽕뽕하고 긴 것이 바로 내 다리였단 말이다. 네가 내 다리를 만졌을적에는 나보다 아래 있었는데 분명하다.》 두사람이 어떻게 대답할수 없어서 그대로 청주사람의 집서름근노릇을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 스키주로의 일반적 특징

스키주로는 내외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중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는 그 어떤 종류의 스키경기도 진행할 수 있게 여러가지 다양한 주로들이 건설되며 애호가들의 스키운동을 위한 초급스키주로와 중급스키주로도 두루 갖추어진다.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천연암반과 험한 산밭을 깎아내고 수십만㎡의 면적에 9개의 스키주로를 기본적으로 닦아놓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머지 않아 공화국의 인민들과 청소년들은 세계적수준에서 훌륭한 스키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 장쾌한 해돋이와 수려한 자연경치도 부감하면서 더욱 명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의 약은 청주사람

《나는 일찌기 하늘우레를 가보았다.》고 하니 동경귀는 뒤이어 《나는 네가 올라간 하늘우레에서 다시 그우레를 올라가보았다.》고 하였다. 청주사람이 동경귀에게 물었다. 매일 4고뿌이상의 물을 마시며 생신한 홍당무, 부추, 파, 버섯, 시금치, 미나리 등의 남새중에서 적어도 두가지 남새를 먹는것이다. 이것을 실험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3개월후에 딱 젊어보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 영리한 개우침

사과 한구레미를 들고 집에 들어서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기뻐서 말하였다. 《어머니, 나 먹으라고 가져온거예요?》 《아니나. 네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릴것이다.》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안 가져다드리나요?》 《응, 거긴 네 고모가 있지 않느냐.》 《제, 그럼 나한테 누나가 없으니 어머니에게 사과를 가져다드릴 사람이 없겠구만요.》

# 자기를 찾은 사람 (10)

### 단편 소설

### 글 량 홍 일, 그림 김 윤 일

8

재난의 새는 언제나 어두운 밤에 나는 벌이다. 그 악몽의 새가 집의 주위를 배회하며 나는것 같았다. 그의 결연 이쁜 아들이었다. 화집에 문을 박차고 나갔으면 지금은 몸이 피로했다. 그렇듯 너무도 정을 기울여온 생의 불꽃이었다. 제 감정에 맞지 않으면 미국 한 소처럼 욕- 하는 자기의 성미때문에 그 불꽃이 멀리 날아가버렸다. 부자간에 언쟁을 해보는 처음이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날카롭게 세워본 일도... 왜서 오늘날같이 일이 벌어졌는가. 아들의 석사논문 포기, 은경의 편지, 아들의 탈가... 아무리 생각해보아 그 화근은 꼭 미국산 소고기의 판매로부터 시작되었기 틀림없다.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한 밤중에 웬 손님이든 싶은 의문을 안고 문을 여는데 뜻밖에도 낮에 판매소에 왔던 아들의 친구였다. 마치 무엇에 굶히 쫓기우기라도 하듯 그는 말을 급하게 했다. 《아버님, 큰일났습니다.》 속이 췌렁했다. 분명 아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야 왜 이리도 헤뭇비겠는가. 《성수군이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 뭐라구요?..》

때문에 잠도 못자고 기다리고있을거라고 말이예요. 교언저리가 쪼르르했다. 그때도 이 예비의 정을 잊지 않고 걱정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성수군을 너무 다행히 마시시오. 사실 지금 온 사파가 미국산 소고기때문에 무서운 공포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는

서운 팽우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수군도 시위에 나섰던것입니다.》 듣고보니 확실히 자기가 뻔히 아는 주장을 부리며 제 가정이라는 명에 얽매어 고집을 부린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알수 없다. 온몸이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계단

고 이곳에서 아들을 간호하고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후두둑거렸다. 제 가정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제 아들의 사랑까지 지을수 없는 상처를 남겨줄뿐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자인 은경이는 예전의 그 목소리로 정답게 불러주는것이 아닌가. 자기 가정의 운명에 파산의 구름을 씌우고 아버지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했던 저주로운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이 미혹스러운 인간을 아무런 탓도없이 대하고있었다. 뒤라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겠으나 도저히 꼭지를 댈수 없었다.

머리카락이 허연게 저 쫓아오듯 같이 언약한 은경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가. 《아버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잠에 든지 30분정도 되었습시다.》 차마 그의 그윽한 눈빛을 마주 대할수 없었다. 늙은게 무슨 망령이 들어서 젊은이들의 가슴을 허비는 망동을 부렸는지...

